2006 명암

하 사람이 꽃이었네-본보 화제의 인물 그 후

'훈장 할머니' 김수순씨
아들이 代이어
교육봉사 나서

'마지막 해녀' 강양임씨
완도 금일도 스타
매일 바닷속 누벼

'나무 박사' 노정남씨
화순서 약초 재배
생약 특허 신청도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사람이 역시 꽃이었다. 2006년 한 해 동안 광주일보 주말판을 통해 소개된 사람들의 삶은 어떤 화려한 꽃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때로 좌절을 겪었으나 다시 일어났고, 안주하기보다는 도전을 택했다.

주말에 만난 사람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순천시 송광면 면사무소에서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던 훈장 김수순(여·71)씨. 김씨는 기사가 나간 이후 군청의 도움을 받아 교실을 송광면 이음리 마을회관으로 옮겼다. 시에서는 지난 4년간 무료로 봉사해 왔던 김씨에게 매달 50만원 강사료와 차비, 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평생학습장' 등록도 추진 중이다. 김씨의 아들 이승훈(48)씨는 "어머니의 뜻을 잇겠다"며 영어·수학 강사를 자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초등학교 2~5학년 18명이 한자 급수시험을 봤는데, 합격한 아이들에게 영어사전을 선물할 생각"이라며 들떠 있었다. 김씨는 "기사가 나간 후 학생 수도 15명에서 30여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정·난관 복원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늦둥이 딸 예령(3개월)이를 얻은 오용화(40·완도군 완도읍)씨. 그는 요즘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지난해 11월 중순에 복원수술을 받고 12월에 베트남 신부 응웬티록(21)씨와 결혼, '허니문 베이비'로 예령이를 얻었기 때문이다. 오씨는 "색시가 3년 쯤 뒤에 한 명 더 낳자고 조르고 있다"며 웃었다.

탤런트 윤은혜와 함께 CF에 등장했던 완도 금일도의 '마지막 해녀' 강양임(48)씨는 동네 스타가 됐다. 강씨는 요즘도 하루 4~6시간씩 금일도 바닷속을 누빈다.

병든 나무가 발견된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났던 노정남(63)씨는 여전히 '나무들의 화타(중국 한나라 명의)'다. 40년에 걸친 그의 나무 사랑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노씨는 최근 화순군 이서면에 24만 평 규모 농장을 만들고 각종 약초를 심는 중이다. 최근에는 기미·주근깨를 없애는 생약을 만들어 보조식품으로 특허를 신청했다.

독일 월드컵이 열리던 프랑크푸르트에서 황후의 예복을 재현한 광주시 동구 금남로 '보성 주단' 김인순(63)씨는 '한복 연구'의 삼매경에 빠졌다. 유럽땅에서 '황원삼'(黃圓衫)과 '노의'(露衣) 등 황후들의 모습을 재현한 이후 의욕을 충전, 왕가 의상 연구에 본격 나서게 된 것이다. 김씨는 2주에 1번, 서울 전통한복문화원에서 하루 8시간씩 전통의상을 공부한다. 최근 한복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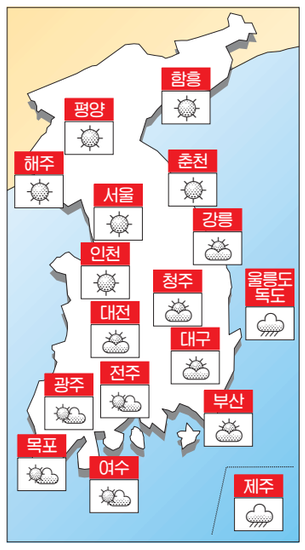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포근한 성탄절

12월 25일 (음 11월 6일) ◇전국날씨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다.

광 주	차차 흐려짐	2~11℃
목 포	차차 흐려짐	3~10℃
여 수	차차 흐려짐	5~12℃
완 도	차차 흐려짐	3~11℃
구 례	차차 흐려짐	-1~12℃
해 남	차차 흐려짐	-1~11℃
장 흥	차차 흐려짐	-1~11℃
고 흥	차차 흐려짐	1~12℃
순 천	차차 흐려짐	-1~12℃
영 광	차차 흐려짐	2~10℃
진 도	차차 흐려짐	1~11℃
전 주	차차 흐려짐	1~11℃
남 원	차차 흐려짐	-2~11℃
정 읍	차차 흐려짐	1~10℃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5:02 17:46 썰물 10:21 23:06
여 수 밀물 12:29 --:-- 썰물 05:49 18:45

▲해뜸 07:39 ▲해짐 17:26 ▲달뜸 11:08 ▲달짐 22: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날 씨						
최저/최고	4/10	3/8	-1/4	-3/5	-2/8	-1/8

대학 편입학 모집 2배이상 늘어

전국 190여개 대학의 2007학년도 1학기 편입학 전형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표〉

대학별 모집인원은 일반편입 기준으로 전남대(광주) 220명, 고려대(서울) 234명, 성균관대 254명, 연세대(서울) 228명 등이다.

전체적으로 모집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일반편입 원서접수는 고려대 28~30일, 연세대 28일~1월2일, 이화여대 28일~1월5일 등 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주요대학 편입학 전형일정

대학	모집인원	원서접수	전형일	전형방법
전남대	광주 220 여수 161	1월10~12일	1월30일	일반학과:영어40, 성적20, 면접40 국악·미술학과:영어20, 성적10, 면접20, 실기50
고려대	안암 234 서창 132	12월28~30일	1월13일~2월2일	1단계:영어50 2단계:성적20, 면접30
서강대	119	1월2~5일	1월15일~2월1일	1단계:영어100, 성적50 2단계:1단계150, 면접100
성균관대	254	1월2~5일	1월16일~2월3일	1단계:영어55, 성적40 2단계:영어55, 성적40, 면접5
연세대	서울 228 원주 138	12월28일~1월2일	1월13일~2월2일	1단계:전공100, 서류50 2단계:면접구술50
이화여대	125	12월28일~1월5일	1월12~26	영어40, 성적40, 면접20
한양대	서울 199 안산 132	1월12~14일	1월23일	인문:영어35, 국어35, 성적30 자연:영어30, 수학40, 성적30

환승 정보지도 15만부 배포
승강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

광주시 노선개편 보완대책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노선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환승정보 부족 등 문제점을 집중 보완하기로 했다. 시는 또 버스 전용차로와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시내버스의 정시 운행을 돕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선개편 관련 미비점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잘못 표기됐거나 위치가 부정확한 승강장 45곳을 모두 개선하고 이달 말까지 구 승강장을 모두 철거해 혼선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마을버스-시내버스, 지하철-시내버스 간의 환승 오류에 대해 집중 분석·보완해 오작동 사례를 최소할 방침이다.

특히 상인들의 반발을 불렀던 서구 양동시장의 노선감축 민원은 의견수렴과 현지점검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양동시장은 지하철과 중복노선을 대폭 폐지해 노선이 16개에서 10개로 줄었으나 지하철역 이용객이 60%이상 급증해 시장 이용객의 환승이 늘었음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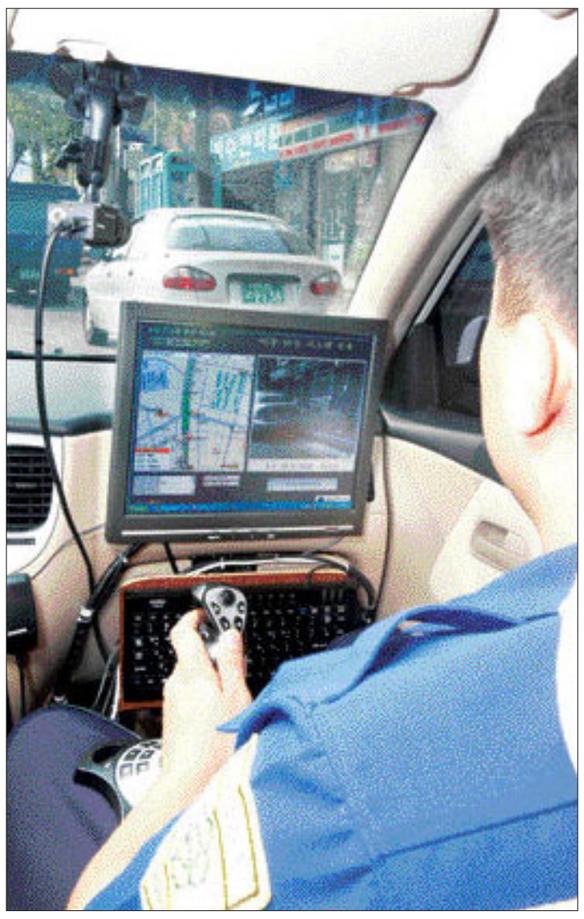
시는 내년 1월 말까지 환승 정보 지도 15만 부를 만들어 배포하고, 버스 운행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시민들이 시내버스의 도착시간 등을 손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시는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기정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6개 반 3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장비 장착 차량 등 가용할 장비를 총동원해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승강장 등에는 '주차단속, 견인구역' 등의 푯말 설치와 모범운전자 등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교통질서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시는 준공영제 조기정착을 위해 6개 반 30명과 이동식 단속장비 장착 차량 등을 동원, 24일부터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울대 정시모집 경쟁률 4.13 대 1

농어촌전형 6개과 미달

서울대의 2007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 의예과 등 6개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거나 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원자가 모두 합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자연대·수의예과·공대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이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었으며, 의예과·사범대 자연계열·생활과학대 의류 식품영양학과군이 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인문계의 경우 논술과 면접에서, 자연계는 면접에서 과락을 기록하지 않는 한 합격된다.

1천852명을 뽑는 일반전형은 7천656명이 지원해 4.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3.96대 1이었다.

학과별로는 의예과가 35명 모집에 132명이 지원해 3.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법대가 3.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경영대는 3.76대 1로 나타났다.

15명 정원에 189명이 몰린 미대 서양화과가 12.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특별한 빛의 은총 가득하길"

최창무 대주교 성탄 미사

성탄절을 맞아 광주·전남 성당과 교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는 미사와 예배로 분주했다 .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24일 오후 8시 북동성당에서 최창무 대주교 집전으로 성탄 미사를 올렸다. 성탄절 당일인 25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임동성당에서 '예수성탄 대축일 예수성탄 대축일 미사'가 열릴 예정이다.

최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에서 "만인을 비추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 축제를 맞아 이 지역민 모두와 신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특별한 빛의 은총이 가득하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축복이 가득한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개신교 계도 각 교회별로 기념 예배를 가졌다. 일곡 중앙교회는 24일 오후 일곡동 거리에서 '성탄절 거리축제 일곡동한마당' 행사를 가진데 이어 25일 오전 11시 성탄 예배를 진행한다. 봉선동 겨자씨 교회와 화정동 중앙교회 등도 예배를 갖고 예수 탄신을 축원한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